

제안심사위 “형평성 상실...받아들일 수 없다” 제동

민간공원 2단계 시공사위 감사 결과 논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과 관련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광주시 제안요청서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시 감사위가 이를 뛰어넘어 우선협상대상자 교체 시도하자 제안심사위가 제동을 건 구두다. 이 과정에서 시 감사위는 “책임은 지겠다”며 감사 결과를 제안심사위에 받아들 줄 것을 종용했다는 이야기까지 새나오고 있다.

시 내부에서는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자신 사퇴 요청설까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시 감사위 감사가 시 산하 공기업의 자책 박탈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또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잘못된 행정을 들춰내 바로잡겠다는 시 감사위의 감사 결과와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시 행정 절차가 정당성을 상실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위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를 다짐하고, 광주경찰청이 사법당국 고발을 주장하면서 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심사표 사전 유출, 업체 문제제기, 감사 착수 '수상한 감사 착수 과정' -광주시가 지난 5월 공고한 '제안요청서' 제19호(심사과정) 제1항은 “심사과정은 공개와 비공개를 병행할 계획이며, 평가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사업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심사표가 공무원에 의해 사전 유출됐고, 광주시의회에 전달된 것이다. 이 심사표를 받아본 일부 업체에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이용섭 시장이 감사를 지시했다. 심사표는 당시 결재라인인 행정부시장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기밀문서였지만, 업체들 사이에 유통돼 나올아나고 있다. 감사는 그러나 문서 유출보다는 심사 과정에 집중했다. 담당공무원이 매기는 정량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주로 살펴본 것이다.

시 감사위는 지난 13일 ▲공원시설 외의 비용을 공원시설비에 포함 ▲감정평가서 미제출 처리 부적정 토지가격 산정 기준 위반 ▲업체명기 및 유사표기 추가 발견 등을 이유로 잘못 산정된 점수를 바로 잡았다며, 환경생태국의 확인을 거쳐 오전 제안심사위에 이를 넘겼다. 하지만 제안심사위는 시 감사위의 이같은 제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파행이 계속되자 시는 14일 오전 13명 위원 중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회의를 속개해 시 감사위 감사 결과에 따른 재평가를 요청했다.

◇제안심사위, “시 감사위 과도한 해석, 착오 바로 잡아” -그러나 14일 오전 회의에서도 제안심사위의 입장은 같았다. 감사결과 문제제기라고 상정된 4개의 안전 가운데 3건은 불인정하고, 1건만 인정해 광주도시공사의 감정이 기준 27점에서 5점으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자 시와 시 감사위는 제안심사

안전 4개 가운데 3건 불인정

업체들 “이의제기 불인정...법적 대응” 시민단체들 수사 촉구 논란 거셀 듯

위원들에게 ‘위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제한된 범위, 즉 제정에 대해서만 위임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시 감사위의 감사결과가 광주도시공사를 표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른 공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제안심사위 위원들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심사위원은 “시 감사위가 왜 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의 지위를 박탈하려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며 “법적으로 사업 참여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그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데, 감사를 통해 이를 무리하게 하려한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박탈되는 업체의 반발도 거세다. 시의 제안요청서에서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게 해놓고 이를 받아들여 감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시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착수 배경을 “지난 11월 8일 발표된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선정과정의 객관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즉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감사위원회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감사, 수사 의뢰 등 예고, 시 행정 전반 다시 살펴는 제기돼야 -행정에 대한 신뢰는 공장성, 절차적 타당성, 형평성에 있다. 그러나 이번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그리고 시 감사위의 감사 및 이후 행위는 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감사 본연의 취지는 은연간 없고, 제도와 규정을 벗어날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단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썩은 살을 도려내겠다”며 강한 징계 의지를 드러냈고, 시민단체에서도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어 쉽게 파장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시 감사위 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체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하는데다 광주의 경우 민간 거버넌스까지 구성해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련 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거쳐야 했다 는 목소리도 높다.

중앙공원, 중의공원, 일곡공원 등은 수익성이 높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부지여서 건설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직 마인드를 철저히 정립하고, 제정 및 선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불신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부터 건설업체의 로비가 극에 달했으며, 선정 이후에는 ‘감사착수설’, ‘우선협상대상자 교체설’ 등이 끊임없이 나돌기도 했다. 이미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만큼 감사원 감사,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이 같은 과정 전반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아시아문화전당 구상권 문제 해결, 경전선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약속했다. <광주전남 사진공동취재단>

이낙연 총리 “광주형 일자리 청와대·정부 막후 노력중”

양동시장 상인들 만나...문화전당 구상권 해결·경전선 예타 면제 등 약속

이낙연 국무총리가 광주를 찾아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아시아문화전당 구상권 문제 해결, 경전선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지난 15일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 정부도 막후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며 성공을 위해서는 광주시민의 여론과 의견이 매우 중요 한만큼 대승적으로 판단해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광주·전남 여러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펼치는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부지 선정은 내년 초에 결정될 것”이라며 “부지 선정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거의 다 용역이 끝난 상태이며 정

치권에서도 이미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전문기관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전력을 포함한 전문기관들을 저를 포함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정치권의 외풍은 저라도 막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업연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총리는 “제가 위원장을 맡는 국제대회 지원위원회, 그중에서도 세계수업연수권지원위원회를 내년 빠른 시기에 개최해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전선 호남 구간(광주~순천)의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일환으로 예비타

당조사면제 대상에 포함해 추진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며 내년 1월 중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유공자 단체 등을 상대로 검토 중인 거액의 구상권 청구를 두고는 “사리에 맞고 광주시민의 걱정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연내에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총리는 호남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을 방문해 상인을 만났다. 과일을 구매하고 휴어와 참쌀도넛 등을 맛보며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했다. 이어 이 총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12월 대선 당시 들렀던 국립집에서 식사를 결정한 간담회를 열어 상인들 고충을 들었다. 이날 점심 간담회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등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동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대통령 경제·민생 챙기기 속도낸다 ...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경제·민생 챙기기에 고삐를 죄는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며, 지난주 교육부·고용노동부에 이어 이번 주에는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와 맞물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우선순위가 남북관계에서 민생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현재로서는 북미 간 비핵

화 협상 등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일단 숨을 고르며 ‘발등의 불’인 경제·민생 문제를 돌보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제 지표 악화가 계속된다면 내년 집권 3년차로 중반기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민생·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17일로 예정된 확대경제장관회의가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총력체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합의문 채택에 성공,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될 것을 두고도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여야 대립을 완화하고 청와대와 국회의 소통을 개선해 민생·경제 정책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 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세척 의혹 국정조사 내용과 범위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야권의 협조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한민국 대표 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광주지사 1688-1104
광주첨점 062)974-3050

국내 출발 최대 크기! 급이 다른 1만톤급 세레나호

당신의 바다는 어디인가요?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 ▶ 대한민국 크루즈 순위 1위 기업
- ▶ 국내유일 10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영
- ▶ 2017 아시아 크루즈 어워드 '아시아 최고 크루즈 여행사상' 최초 수상

무료 셔틀버스 제공!

광주 → 인천(4월 26일) / 광주 → 속초(5월 2일, 6일)

• 1만 4천톤 • 전장: 290m • 전폭: 35m • 수용인원: 3,780명 • 승무원: 1,100명

2018 인기크루즈 BEST 3

베스트셀러 / 싱가포르 출항 동남아 크루즈 6월 7일

1,870,000부터 [₩5118 선택관광 있음]

▶ 1/13~ 매주 일요일 출항 •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푸켓/싱가포르

• 90일전 예약시 1인 10만원 할인, 동남아시아 No.1 크루즈 일정

• 14만 톤 로얄캐리비안 보이저호 탑승

선실우선배정+ 최대 25만원 할인

12월 28일까지 예약 및 완납자에 한함

단체예약 추가할인! 최대 10만원 추가할인!

8명이상 3만원, 14명이상 5만원, 20명이상 10만원 할인
3/4인실 이용 시 2번째 고객까지만 단체인원 포함

3/4인실 파격가 성인 80만원 소아 30만원!

3/4인실 이용시 3번째, 4번째 고객 상용가

4월 26일 인천항 출발

인천항 • 상해 • 후쿠오카 • 부산항

한국/중국/일본 전세선 6일

내 측 188만원부터 발코니 248만원부터
오션뷰 218만원부터 스위트 328만원부터

5월 1일, 2일 부산항 출발

부산항 • 속초항 • 블라디보스톡 • 사이가미나토 • 속초항

한국/러시아/일본 전세선 5일/6일

내 측 188만원부터 발코니 248만원부터
오션뷰 218만원부터 스위트 328만원부터

5월 6일 속초항 출발

속초항 • 블라디보스톡 • 오타루 • 아이오리 • 부산항

한국/러시아/북해도 전세선 7일

내 측 198만원부터 발코니 258만원부터
오션뷰 228만원부터 스위트 338만원부터

이색적인 강성 상해

큐슈 최대의 중심 도시 후쿠오카

가장 가까운 유럽 블라디보스톡

장난꾸러기 요괴마을 사이가미나토

극동문화의 블라디보스톡

미국적인 분위기의 오타루

아름다운 경관 아이오리

가전포함내역 크루즈 선실료 및 항공료,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입/지세한 사항 및 일정표는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인전경비포함] 여행유의/여행자재/여행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c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선적경비(관광) 있음/입출 심사를 통해 선적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적경비는 선적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적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적관광 미 선적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지역별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메디컬]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여행기간은 고객별 진행개요에 따라 다릅니다. • 출국권: 일본여행업 제47회(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0 롯데관광빌딩) • 일본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 기해여행 실제 따른 보증보험 500만 가입 • 여행보험차리번호: 1589-8882 • 여행유지/여행권고/여행권고 10명 • 크루즈 2인 1실 사립/여행객실 제외 • 교통편: 항공, 버스, 크루즈선상에서 따라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 입원, 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